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94호 [루게 제23046호] 주체99(2010)년 4월 4일 (일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만수대예술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만수대예술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공연을 보게 된 관람자들의 가슴은 걱정의 파도로 세차게 설레이고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극장관람석에 나오시자 우렁찬 <만세!>의 환호를 울리는 전체 관람자들은 탁월한 사상리론활동과 정력적인 선군혁명령도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끌어주신데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인민무력부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김영춘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인 조선인민군 대장 김정각동지를 비롯한 군대의 지휘성원들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최태복동지, 김기남동지, 부장 김경희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의 책임간부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영예의 《김일성훈장》을 수여받은 만수대예술단의 예술인들은 합창 《수령님 영원히 모시고 살리》, 《당은 장군님의 품》, 여성 10중창과 합창 《모란봉》, 여성독창 《나의 조선아》, 무반주합창 《이 강산 하도 좋아》, 여성 4중창 《사회주의 멋이랴네》, 혼성 6중창 《번영하여라 로동당시대》, 바이올린과 남성중창 《빨찌산의 노래》, 여성기악중주 《장군님이 그리워》, 무

용 《내 나라의 푸른 하늘》, 《사랑의 꽃비단》, 여성합창 《황금나무 능금나무 산에 심었소》, 합창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높이 들자 붉은기》 등 다채로운 종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공연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승리만을 떨쳐온 우리 혁명의 빛나는 투쟁행로를 격조높이

노래하였으며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강성대국의 평마루를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기개와 불굴의 의지를 잘 보여 주었다.

또한 출연자들은 높은 예술적기량으로 모든 작품들을 훌륭히 형상함으로써 판록있는 예술단체의 위력을 힘있게

파시하였다.

관람자들은 선군조선의 기상이 나뉘는 격동적인 공연을 보면서 혁명의 준엄한 폭풍우를 뚫고 우리 당이 걸어온 승리의 로정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았으며 일편단심 당을 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충성의 맹세를 다지였다.

만사람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울려 퍼지고 어버이장군님을 우리러 리치는 흥모의 열정으로 하여 장내는 불도가니마냥 끓어 번지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답례를 보내시며 공연성공을 축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만수대예술단의 예술인들이 정력적대가 뚜렷하고 우리 인민의 지향과 념원을 그대로 반영한 사상예술성이 높은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공연성공을 높이 평가하시고 전체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만수대예술단이 창립후 오늘까지 당의 문예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특색있는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창작공연함으로써 주체예술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고 하시면서 지난 기간 그들이 이룩한 자랑찬 성과를 높이 치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만수대예술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앞으로도 혁명적예술집단의 전통을 고수하고 예술창조활동을 과감히 벌려 우리 군대와 인민을 강성대국건설위업 실현을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예술창조와 활동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조 중 친 선 연 회 진 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에서는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신임특명전권대사의 부임에 즈음하여 4월 3일 저녁 연회를 마련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연회에 참석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최태복동지, 김기남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책임간부들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 국장인 김정각동지, 조선인민군 대장들인 김원홍동지, 현철해동지를 비롯한 국방위원회와 군대의 지휘성원들, 외무성의 책임일군들이 연회에 참가하였다.

연회에는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성원들과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중국 친진녀자

배우선수단이 초대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신임특명전권대사 류홍제동지와 함께 연회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조중친선의 강화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고계시는 경에하는 장군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연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와 류홍제신임특명전권대사가 축배사를 하였다.

연설자들은 두 나라로세대령도자들께서 마련하시고 키워신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대를 이어 더욱 공고발전시킬데 대한 두 당, 두 나라 인민들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피력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위하여, 존경하는 호금도동지의 건강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연회는 시종 우애의 정 넘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본사정지보도반

## 위 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만수대예술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 위 대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만 수 대 예 술 단 의 공 연 을 관 랑 하 시 었 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만수대예술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 래양송가 높이 부르며 불멸의 업적 길이 전해가리 제2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장으로 달리는 인민의 마음

맑고 푸른 하늘 가없이 펼쳐진 내 조국땅에 민족최대의 경사로운 명절 태양절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절세의 애국자이시고 민족의 태양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이 온 나라 방방곡곡에 뜨겁게 끓어오르는 뜻깊은 4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기념일을 가장 경사스럽고 성대한 날로 빛내이려는 인민의 마음과 마음이 태양송가 높이 울려 퍼질 축전장으로 달려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절세의 위인이시며 우리 민족의 어버이이실뿐 아니라 온 세계가 공인하는 인류의 래양이십니다.》

머지않아 수도 평양에서는 제2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이 성대히 열리게 된다.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온 겨레의 열화같은 경모와 신뢰의 정에 떠날수록 수도 평양의 화려한 무대들에서 뜻깊게 펼쳐지게 될 제2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제2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려는 우리 인민의 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 세워 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어버이사랑에 떠날수록 《인민》이라는 뜻깊은 부름과 더불어 더욱 빛을 뿌리게 될 전인민적인 예술축전이다.

이번 축전은 《전국전문가 예술축전》, 《전국예술선진대 축전》, 《전국기동예술선진대 축전》, 《전국근로자예술축전》 부류로 나뉘어 진행되며 여기에 중앙과 지방의 많은 예술단체와 예술선진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등의 기동예술선진대원들, 각계층 근로자들, 해외동포예술인들이 참가하게 된다.

축전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준비사업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있다.

축전조직위원회에서는 이번 축전이 명실공히 전인민적인 예술축전으로서의 성격에 맞게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인민의 열화같은 한마음을 온 세상에 파시하며 주제예술발전을 추동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도록 하기 위해 빈틈없는 작전과 조직사업을 짜고두고있다.

최근년간 선군장정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주제예술발전의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펼쳐주시고 혁명적근인문화에 바탕을 둔 선군시대 로동계급의 고상한 새 문화의 본보기가 되시며 나라에 혁명의 노래, 승리의 노래가 더욱 힘있게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는 중앙의 예술단체들과 전국각지 예술인들, 각계층 근로자들속에서 비상한 축전참가 열의를 촉발시키었다.

축전조직위원회와의 긴밀한

연계밑에 평양시와 지방의 해당 부문 일군들은 아예단위들에 내려가 축전준비가 원만한 수준에서 보장되도록 적극 이끌어 주었다.

뜻깊은 4월의 축전무대에 시대정신이 맥박치는 훌륭한 작품들을 울릴 불같은 열정이 줄기차게 벌어졌다.

우리 인민에게 끝없는 행복과 밝은 미래를 안겨 주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영생기원의 뜨거운 마음이 차넘치는 작품들, 현시대의 정세를 민감하게 반영하고 주제성, 민족성을 철저히 구현한뿐 아니라 기적과 위훈창조로 들끓는 현실투쟁과 생활을 진실하면서도 소박하게 반영하고 단결, 지방별특성을 잘 살린 훌륭한 작품들을 창작 완성하기 위한 활발한 예술창조사업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있다.

이 과정에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과 불멸의 혁명업적, 고매한 품모를 주제로 하는 작품들과 당의 선군혁명사상교양,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에 이바지하는 작품들,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기어이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총진군을 합쳐서 다그치고있는 천만군민의 영웅적인 투쟁과 생활, 날로 비약하는 내 조국의 자랑찬 현실을 담은 작품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지키고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는데

이바지하는 작품들을 비롯하여 부류별단체들의 특색에 맞는 성악, 기악, 무용, 화살소품 등 사상예술성이 높은 훌륭한 작품들이 창작창조되었다.

축전에 참가할 대상들에 대한 부류별심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전인민적인 예술축전사의 첫장이 새겨진 2년전에 비하여 이번 축전의 참가단체수가 거의 배로 늘어났것만을 통해서도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영생기원의 뜨거운 마음이 차넘치는 작품들, 현시대의 정세를 민감하게 반영하고 주제성, 민족성을 철저히 구현한뿐 아니라 기적과 위훈창조로 들끓는 현실투쟁과 생활을 진실하면서도 소박하게 반영하고 단결, 지방별특성을 잘 살린 훌륭한 작품들을 창작 완성하기 위한 활발한 예술창조사업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있다.

이 과정에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과 불멸의 혁명업적, 고매한 품모를 주제로 하는 작품들과 당의 선군혁명사상교양,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에 이바지하는 작품들,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기어이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총진군을 합쳐서 다그치고있는 천만군민의 영웅적인 투쟁과 생활, 날로 비약하는 내 조국의 자랑찬 현실을 담은 작품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지키고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는데

제2차 4월의 봄 인민예술 축전 선진화들이 훌륭히 창작되어 축전분위기를 더욱 높이고있다.

수도의 여러 극장, 음악당, 회관 등이 축전개막을 앞두고 더욱 화려하게 단장되고있다.

이번 축전기간에 여러 부류의 축전들이 단독, 조별, 편환 공연형식으로 진행될뿐 아니라 광장, 공원, 유원지를 비롯한 평양시안의 곳곳에서 축전참가 단체들의 야외공연도 펼쳐지고 경공업과 농업부문의 여러 단위들에 대한 경제선동도 동시에 벌어지게 됨으로써 태양절을 더욱 뜻깊게 장식하고 올해 공동사실과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주최를 높이 받들고 펼쳐나선 우리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게 될 것이다.

은 나라 전체 인민은 나의 한생을 하나로 묶어 짜면 《인민》이라는 두 글자가 남는다고, 인민들이 바라다면 들우에도 꽃을 피워 인민들에게 영광을 드리고싶은것이 나의 솔직한 심정이라 하시며 인민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낌없이 다 돌려주시고 이렇듯 뜻깊은 전인민적인 예술축전무대까지 마련해주신 우리 장군님의 크나큰 은정에 다함없는 감사사를 드리고있다.

인민이 심장으로 부르는 태양의 노래, 그리움과 맹세의 노래 차넘칠 제2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전인민적인 예술 축전무대에서 울려 퍼지게 될 태양송가로 하여 민족최대의

명절 태양절은 더욱 빛날 것이며 4월의 봄명절을 맞는 우리 군대와 인민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이번 축전은 위대한 수령 김정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불세출의 선군령장 김정일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맹명적대고조의 봉화를 높이 하여 더욱 역세게 싸워나가는 인민들의 불굴의 의지를 힘있게 펼치는 뜻깊은 계기로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피주신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높이 들고 김일성민족의 위대한 정신력을 사회주의 강성대국승리의 그날을 향하여 전진하는 총진군대오에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백배로 다져 줄 것이다.

이번 축전을 통하여 우리 인민은 예술을 대중화할데 대한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과시할것이며 선군시대의 요구와 우리의 사상감정에 맞는 훌륭한 무대예술작품들과 군중예술작품들을 창조함으로써 온 사회에 혁명적이며 락관적인 문화정서감정기풍을 더욱 활짝 꽃피우고 선군문화예술의 일대 전성기를 펼치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어버이수령님께 바치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총정과 정력적인 선군혁명령도가 있기에 태양의 노래 높이 부르며 전진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본사기자 오철룡

**함경북도정보통신국에서**

함경북도정보통신국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일터와 생활환경을 새맛이 나게 훌륭하게 꾸리면서 언제나 신심과 락관에 넘쳐 혁명적으로, 진두적으로 일해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체육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체력을 가지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올해에도 도안의 통신운영 사업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려는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드높은 신심과 락관은 활발히 벌어지는 광대한 대중체육활동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국의 일군들은 이 사업을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시키고 혁명적락관과 승리의 신심을 더해주는 중요한 정치사업의 하나로 보았다. 모든 종업원들을 튼튼한 체력을 갖춘 혁신자들로 준비시키고 일터에 광만과 정서가 넘쳐흐르게 하자 이것이 이들의 결심이었다. 일군들은 이런 판공과 팀장을 가지고 체육사업이 대중화, 생활화되도록 떠밀어 주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일군들은 배구장과 탁구장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체육시설과 체육기구를 충분히 갖추어놓고 종업원들이 그것을 널리 리용하여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하게 벌리도록 조직사업을 면밀하게 하고있다.

집단달리기와 여러가지 국방체육경기, 배구, 탁구경기, 체육회와 민속놀이 등 자주 진행되는 경기에 국의 일군들이 참가하여 종업원들의 열의를 더욱 높여주고있다.

대중체육활동이 활발히 벌어지는 속에 종업원들의 체육수준이 더욱 높아져 누구나 신수가 되어 체육경기에 참가하고있다.

대중체육활동으로 일터에 광만이 넘치니 종업원들속에서 집단에 대한 애착이 커지고 많은 사업에 대한 책임감이 더욱 높아지고있다. 무슨 일에서나 집단의 단합된 힘을 과시해가는 이곳 종업원들은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대중체육과 군중문화예술활동에서도 앞지러를 양보하지 않고있다.

이곳 종업원들은 도적으로 진행되는 여러 종목의 체육경기에서 우승의 영광을 차지하고있다.

대중체육활동과 더불어 일터에 차넘치는 혁명적락관과 열정은 곧 많은 사업에서의 성과로 이어지고있다. 국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자기 단위에 깃들여있는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기고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체신설비들을 더욱 현대화하는 높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시기 여러건의 국가발명권을 받은것을 비롯하여 체신의 현대화에 이바지할수 있는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내놓고 현실에 도입하여 국가에 많은 이익을 주었다.

이 나날에 함경북도정보통신국은 여러차례에 걸쳐 《선군봉화상》 경취를 위한 사회주의경쟁공공순회 우승기를 수여받은 자랑을 떨치게 되였으며 일 잘하는 단위, 혁명적락관과 정서가 차넘치고 단합되고 화목한 집단으로 불리우게 되었다.

전철호

**말린 과일과 건강**

—말린 추리는 몸안의 파괴적인 성분들인 유리리디칼들을 무력하게 만들면서 흡수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있다. 많은 양의 카로틴과 베타카로틴을 함유하고있는 말린 추리는 비루스와 세균들에 대처하며 시력을 정상화한다. 저녁에 말린 추리 몇개를 찬물 한고부속에 잠그었다가 아침에 우린 액을 먼저 민속에 마시고 다음에 잠그었던 추리를 먹으면 건강에 좋다.

—심장병환자들에게 가장 좋은 천연 《약제》는 말린 살구이다. 말린 살구속에는 심장의 정상활동에 필요한 칼리움이 풍부히 들어있다. 때문에 심근경색을 앓았거나 심장박동장애, 협심증, 피순환장애, 부종 등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좋다.

—말린 포도는 심장혈관계통을 강화할뿐 아니라 신경계통의 활동을 정상화한다. 말린 포도에는 골소추증의 발생을 억제하는 붕소와 갑상선의 정상기능에 반드시 필요한 망간이 들어있어 건강에 대단히 유익하다.

—말린 사과와 배는 뇌활동에 필요한 붕소를 많이 함유하고있다. 말린 배는 중금속들과 독성물질들을 유기체적으로 내보내는 특성도 가지고있어 병치료에 효과적이다.

본사기자

**중국을 방문하였던 조선인민군 대외사업일군대표단 귀국**

중국을 방문하였던 안영기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인민군 대외사업일군대표단이 3일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조선인민군 군관들과 주중조선인민공화국대사관 국방부판이 대표단을 마중하였다.

**까자흐스탄에 갔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대표단 귀국**

까자흐스탄에서 진행된 제7차 겨울철아시아경기대회 선수단 단장회의에 참가하였던 체육지도위원회 부위원장인 정인철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

비행장에서 조선인민군 군관들과 주중조선인민공화국대사관 국방부판이 대표단을 마중하였다.

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단을 마중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제4, 5부)가 새로 나왔다**

적압박의 도수를 전례없이 강하게 된다.

일본반동들은 미국과 남조선 피뢰들의 책동에 편승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대항하여 긴급요청하는 등 반공화국소동을 악랄하게 벌린다.

그리고 선군정치로 위용떨치는 우리 공화국을 끝없이 동진시키는 선군정치와 선군주의의 활동을 방해하는 한편 어머니를 리해 못하고 결별된 그들의 딸을 자기들편에 끌어당기면서 비렬하게 책

동한다.

주인공과 일본의 망심적인 인사들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의장서명》이라는 것이 발표되자마자 이를 단호히 규탄배격하고 또 한차례의 핵실험을 단행하는 우리 공화국의 현실을 목격하면서 조선의 자주정치와 선군정치의 탄생을 감지 못한다.

너교수의 딸도 일본반동들의 악랄한 책동을 목격하며 어머니가 가는 길이 정의의 길임을 깨닫게 된다.

영화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공화국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며 자주적대를 굳건히 지켜나가는 우리 나라를 미국 단총령이 방문하는것으로 끝난다.

영화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신 주제조선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는것을 힘있게 강조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제4, 5부)가 새로 나왔다

적압박의 도수를 전례없이 강하게 된다.

일본반동들은 미국과 남조선 피뢰들의 책동에 편승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의장서명》이라는 것이 발표되자마자 이를 단호히 규탄배격하고 또 한차례의 핵실험을 단행하는 우리 공화국의 현실을 목격하면서 조선의 자주정치와 선군정치의 탄생을 감지 못한다.

너교수의 딸도 일본반동들의 악랄한 책동을 목격하며 어머니가 가는 길이 정의의 길임을 깨닫게 된다.

영화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공화국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며 자주적대를 굳건히 지켜나가는 우리 나라를 미국 단총령이 방문하는것으로 끝난다.

영화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신 주제조선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는것을 힘있게 강조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